

# KB라이프, 보험·요양·은행 원스톱 해결 ‘시니어 동반자’

## KB라이프 역삼센터 오픈

원스톱 시니어 플랫폼 본격 가동  
은퇴자산·연금·상속증여 등 상담  
‘생애주기 접점’ 그룹 단위로 확대  
5곳서 ‘KB골든라이프케어’ 운영

KB금융그룹이 ‘KB라이프 역삼센터’를 열고 요양 컨설팅과 보험상담·자산관리 등 노후설계 기능을 결합한 ‘원스톱 시니어 플랫폼’을 본격 가동했다. 보험업계에서 요양사업 ‘선봉장’으로 꼽히는 KB라이프가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요양시설 운영을 넘어 노후설계와 돌봄 경로를 한 공간에서 연결하면서, 그룹 차원의 시니어 전략을 확장·구체화하는 실행 축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금융은 작년부터 새로운 그룹 통합 시니어 서



KB라이프타워.

/KB라이프

비스 운영모델 구축을 추진해 왔다. 올해엔 서울 역삼동 KB라이프타워에 보험·요양·은행 서비스를 결합한 ‘보험-은행 복합점포’인 ‘KB라이프 역삼센

터’를 열었다.

역삼센터는 단순 보험PB 창구가 아니라, 돌봄 상담 기능을 전면에 배치했다. 센터 내에는 케어컨설팅 기능이 포함돼 재가돌봄 서비스 안내부터 요양원 입소 관련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만든다. 보험사의 시니어 사업이 ‘요양 시설을 몇 곳 운영하느냐’에 머무르지 않고, 돌봄을 실제로 설계·중개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다.

이 모델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KB라이프가 ‘그룹 기능’을 끌어와 플랫폼 완성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센터를 KB라이프가 전면에 세우되, 은퇴자산·연금·상속증여 등은 KB국민은행의 시니어 상담 기능과 결합해 한 지점에서 다루는 구조다. KB라이프 입장에서는 보험 판매 채널을 확장하는 동시에, 시니어 고객의 ‘생애주기 접점’을 그룹 단위로 넓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보험을 넘어 자산관리와 요양·돌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시니어라이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한곳에서 노후 전반을 진단하고, 설계해 실질적인 준비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행 체력’ 측면에서 KB라이프는 이미 요양 인프라를 쌓아온 경험이 있다. 요양 전문 100%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전면에 세우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영 시설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보험사가 단순 제휴를 넘어 돌봄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모델을 구축해 왔다. ‘요양시설을 운영해본 보험사’ 수준이 아니라, 시설 운영 경험이 누적된 사업자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시설의 개수뿐 아니라 ‘규모’도 가볍지 않다. 실제로 KB골든라이프케어는

서초·위례·은평·광교에 이어 서울 강동구에 강동 빌리지를 추가로 열며 직영 거점을 5곳으로 확대했다.

또한 자금 측면에서도 KB라이프가 지난해 5월 말 요양 자회사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유상증자 참여) 시설 확장과 운영 고도화에 쓸 재원을 보탠 만큼, 역삼센터는 단발성 이벤트라기보다 중장기 시니어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정문철 KB라이프 대표는 “시니어 고객의 삶은 요양과 금융으로 나뉘지 않는다. 돌봄·주거·건강·재무는 고객의 일상 속에서 하나의 여정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KB금융은 ‘KB라이프 역삼센터’를 중심으로 고객이 한 곳에서 노후 전반을 진단하고, 설계해 실질적인 준비로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대기업부터 지방의 소기업까지 수출 지원”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취임 100일  
수출실적 7097억 달러 역대최대  
“중소·중견기업 3년간 110조 투입”

“수출입은행은 원전, 방산, 조선 부분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의 대기업부터 지방의 작은 기업까지 수출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수출시장 다변화에 맞춰 지원해 나가겠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11일 은행회관에서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창립 이래 최대 여신(86조7000억원)을 지원해 사상 최대 수출실적(7097억달러)을 달성했다. 또 비(非)수도권 수출비중(약 42%)보다 높은 28.9%(국내 기업 여신의 50.3%)를 유동성 지원했다.

이날 황 행장은 수도권의 대기업부터 지방의 작은 기업까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떨어질 수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110조 이상을 지원하고, 수출 중소중견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 펀드를 조성해 수은 약정금액(2500억원)의 1.5배를 지역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황 행장은 첨단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대전환(AI)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공지능(AI)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5년간 22조원을 지원한다”며 “수은법 개정으로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원천 기술 확보, 대규모 설비투자 등에 대해 5년간 50

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황 행장은 해외 전략 수주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전략수주분야에 5년간 100조원을 지원한다.

방산기업은 사업단계별 방산 금융 패키지를 통해 수출시장(유럽 중동→아시아→미주)과 수출품목(지상 공중→해양)으로 다각화한다.

원전 기업은 에너지 안보와 AI전력 수요 폭증에 따른 글로벌 원전확대 기조에 따라 대형원전 AMR(유럽 미국 등) 수주를 지원한다.

K-조선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쟁력 있는 수출 기업에 금융을 제공해 친환경 고부가 선박을 수주하고 대미(對美) 신(新)시장(상선 군함 건조 MRO 등) 진출을 견인한다.

그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조선업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수출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가운데)이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금융

## 우리금융, 2000억 국민성장매칭 펀드 조성

올해 총 7조 간접투자 조성 목표

우리금융그룹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2000억원 규모의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국민성장펀드는 총 7조원 규모의 간접투자 자금 조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5조5000억원을 민간금융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앞서 우리금융은 5년간 국민성장펀드 민간금융에 10조원 규모로 참여하기로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자펀드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이번 2000억원 규모의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선제적으로 조성해 국민성장펀드 참여에 속도를 낸다.

이번 펀드는 외부 투자자 의존 없이 우리은행, 우리금융개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 계열사가 전액 출자하는 펀드다. ▲산업전반 지원 ▲스케일업 ▲초장기 기술 등 미래 전략 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우리금융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은 국민성장펀드에서 재정출자금 관리와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 선정 역할을 하는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분야 재정 모펀드 위탁운용사(GP) 모집에 제안서를 냈다. 우리PE와 우리벤처파트너스 등도 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지원할 예정으로, 신속한 매칭 투자를 위해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여 펀드 결성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전략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청약 흥행

특공 생애최초 경쟁률 5대 1  
1순위 청약 평균 3대 1 마감

인천에 선보인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아파트가 청약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뒀다.

특별공급에서 생애최초 전형 경쟁률이 5대 1을 넘어선 데 이어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도 3대 1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일 진행된 특별공급 총 398가구 모집에 448건이 접수됐는데, 생애최초 유형에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렸다. 65가구 모집에 총 326개의 통장이 접수되

며 경쟁률은 5.01대 1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용 49㎡ 타입이 생애최초 4가구 모집에 43건이 접수돼 10.7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59㎡A 타입은 34가구 모집에 153건이 접수돼 경쟁률 4.5대 1, 전용 59㎡B 타입은 27가구 모집에 130건이 접수돼 4.8대 1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는 337가구 모집에 972건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은 2.88대 1이다. 규모가 가장 작은 전용면적 49㎡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는데, 23가구 모집에 68건이 접수돼 2.96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전용 59㎡B는 140가구 모집에 344명이 신청해

2.46대 1, 전용 59㎡A는 174가구 모집에 353명이 신청하며 2.03대 1로 집계됐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한화건설 부문·포스코이앤씨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4개 동, 총 2568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다. 인천시청역은 향후 GTX-B노선 개통이 예정돼 서울역과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0일이며 계약은 다음달 3~5일 3일간 진행된다.

/성채리 인터넷기자 cr56@

## 망원시장 구입물품 소외이웃에 지원

KB국민은행 ‘전통시장 사랑나눔’

KB국민은행은 11일 서울 망원시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외이웃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는 명절을 맞아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추진그룹이 지역화폐를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입한 뒤, 이를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2011년부터 이어온 이 행사는 올해까지 16년간 총 171억원 상당의 식료품

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25만 2000여 명의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들이 직접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응원하며 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 수요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총 15조 152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